

사랑으로 함께하는 작은 자들의 작은 이야기

평등과 참여

통권 313호

독서모임을 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황산공원에 갔다가 봄까치꽃을 보았습니다.

봄까치꽃은 큰개불알꽃이라고도 한다지요.

누가 그런 이름을 그 꽃에 붙인 것일까요?

작고 파란 꽃이 얼마나 예쁜데...

꽃이 지고 난 뒤에 맺히는 열매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예쁜 꽃보다는 그 열매의 모양에 주목하여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 표식입니다.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봄까치꽃, 처음 그 예쁜 이름으로 그 꽃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마음이 흐뭇해
집니다.

큰개불알꽃을 봄까치꽃이라고 하듯이 장애인들을 그런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



한장선(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힐링 캠프’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둘째 날, 관광을 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첨성대와 대릉원을 둘러보고 황리단길 근처 공원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입니다.

한 장애인이 다가와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따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의아하다는 듯 묻습니다.

“왜요?”

“장애인을 만나 먹고 노는 게 제 일이에요. 평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먹고 논다? 아...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만난다는 말이군요.”

“그래요,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마트나 식당 같은 곳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렇게 만나 교제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그것을 장애인들을 만나 먹고 논다고 얘기해요.”

사실 평소 이런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이 대답함



니다.

교회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산 내려오며 했던 결심입니다. 10여 년 전에 뜻하지 않게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처음 했던 일이 이른바 장애인 사역이고, 언젠가는 그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뜻밖에, 뜻하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상경하여 장애인 사역을 감당할 때처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와 일을 하면서 이른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산장애인전도협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개척이나 교회 사역에 대한 권유를 가끔 받았지만, 그때마다 마다했던 것은 그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을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게 주어진 일만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벅칩니다. 제게 주어진 일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며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보면 알 수 있소. 그대의 지나온 삶을 보면 하늘의 왕을 알 수 있소.”

- 김소윤, 소설 <난주>에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며칠 전입니다. 일광 신도시에서 장애인들을 만나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때에 한 장애인이 저희가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옛 직장 동료에게 저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아내는 대전에 살았고, 저는 천안에 살았습니다. 천안역 앞에서 만나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영화까지 함께 보고, 꽤 늦은 시간에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잘못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제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편마미 장애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족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에 단상에 가려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 얘기하며 젊은 날 고백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만일 장애인을 만난다면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친구에게 괜찮다,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착각하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네요. 그 착각 덕분에 목사님을 만난 것이네요”



그러면서 <빨간 머리 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빨간 머리 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앤이 입양을 갔는데, 처음 양부모가 원했던 것은 남자애였어요. 그런데 여자애가 오니 당황하고 실망했어요. 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남자아이 대신 여자아이인 앤이 오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양부모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아내에게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인의 착각과 실수 덕분에 저흰 만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내를 자주 실망시키는 저를 봅니다. 언제까지나 빨간 머리 앤처럼 아내에게 기쁨 주는 선물이고 싶습니다.

어느 후원자의 부고



부고를 받았습니다. ♣ 권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 어찌 그렇게 서둘러 세상을 떠난 것인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부산장애인전도협회 오랜 후원자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후원을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몇 번 통화를 했고, 한번 만나자 해놓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전해오는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부고를 보더니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유가족 난에 형제와 조카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사실 후원자의 배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사는 몇 번 통화를 하여 전화번호와 주소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아예 모르고 이름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어느 날 문득, 후원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서로 일이 있어 늦은 오후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우리의 일이란 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로 만나기도 합니다.) 현화를 하고 돌아서니 검은 상복을 입은 몇몇 사람



이 인사를 합니다. 형제 같지는 않고 조카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떠났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랍니다. 건강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눈물을 흘칩니다. 망연한 모습입니다.

다른 조문객이 있어 몇 마디 못 나누고 접객실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영정을 보고 나오더니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던 분 같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던 분 같다고 합니다. 영정 속 ㅂ권사는 선하게 웃고 있습니다.

과일과 떡, 견과류 따위 주전부리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어떤 여자가 조르르 달려와 말을 겁니다. ㅂ권사가 출석했던 교회의 집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하기에 ㅂ권사가 후원자였다고 했습니다.

신을 신다 말고 서서 그렇게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역시 미혼이었습니다. 평소 나누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흘러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한 곳이 부산장애인전도협회인 셈입니다. 따뜻하고 넉넉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돌아오는 길, 심하게 길이 막혔습니다. 아내를 겨우 제 시간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탁자에 걸터앉아 한참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허적하고 아쉽고... 너무 무심했다 싶은 마음에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문득 얼마 전에 지강유철 선생에게 들었던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옳다.”고 하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헨델의 마지막 오라토리오인 <입다>에 나오는 가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모두 옳다고 적었다가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서 저 문장을 가져와 고쳐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모두 옳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권사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모릅니다. 어쩔 아내가 말하듯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일찍 데려가신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더욱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어느 책에서 한 목사가 전도서의 메시지를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과 ‘코람데오’라는 세 개의 라틴어 문구로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함, 그 즐거움

1. 몇몇 장애인들과 함께 정동진을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탑승 차량 쏘라티를 몰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한 장애인이 그곳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성사된 일입니다.



숙소는 ‘썬크루즈리조트’였습니다. 썬크루즈 호텔과 리조트는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대형 크루즈선 모양의 이색 숙소로,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합숙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지요.

아내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누워서도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동진 하면 해돋이가 유명하지요. 중증장애를 가진 동행인들을 생각하여 특별히(?)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도착하여 먼저 조각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각공원은 리조트 안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저녁이 되자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범선 횡집이라는 리조트 직영 횡집에서 생선회를 떠 와서 숙소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들 지하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빠져 방에서 쉬었습니다. 한참 지나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들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씨도 다섯 곡이나 불렀습니다. ♪씨는 최종장애인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다섯 곡이나 불렀습니다. 흥이 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음이 조금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면 그만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언젠가 그와 함께 노래방에 가야 할까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바다의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출을 기다렸으나 해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아침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나가서 먹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숙소를 나와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로 갔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서 휠체어로는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촛대바위로 유명한 추암공원에 갔다가 강구항에 들러 늦은 점심, 아니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게였습니다. 푸짐하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1박 2일 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스키장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2. 몇몇 장애인들과 함께 기차 타고 서울로 나들이 가는 길입니다. 경복궁과 인사동과 덕수궁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선교사와 그



들을 돕는 후원자가 함께하는 어느 모임에 가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선교회를 알게 되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선한목자선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선교사를 전방 선교사, 후원자를 후방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저를 잠시 소개할 때에 어디든 선교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또한 선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돌아보니,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설레발쳤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가기 전에 약간의 서먹함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입니다, 청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교하자니 부담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모임은 급조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북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중동사태(전쟁)로 한국에서 참석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참 좋았습니다.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사랑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캠프를 앞두고



말씀캠프 장소와 일시를 ‘어렵게’ 정했습니다.

창원에서 내부 사정으로 캠프 참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씀캠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씀캠프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창원의 느닷없는 불참 소식에 이른바 멘붕이 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일을 수습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말씀캠프는, 전국 단위 캠프가 아닙니다. 부산과 창원과 거제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힘을 합쳐 치르는 캠프입니다. 30여 년 전 부산장애인전도회에서 시작된 작은 캠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제와 울산과 경주에 있는 장애인전도협회와 창원벤엘선교단이 함께하는 캠프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부산장애인전도협회가, 제가 내려오기 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창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말씀캠프가 유지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원에서 문제가 생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씀캠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도 장애인 수만큼, 아니 더 많이 참여해 줘야 캠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봉사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후원금 모집도 어려웠습니다.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창원에서 빠지니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거제에서 이 문제를 두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단하기보다는 하루를 줄여 1박 2일이라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캠프 장소를 찾고 일시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다시 모임을 가지면서 2박 3일 캠프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씀캠프는 8월 18일(화)~20일(목)에 경주 컨싱턴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캠프를 여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여러 형편에 맞춰 시기를 정하다 보니 그때 캠프를 열게 됐습니다. 이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때라고 하는데, 봉사자 모집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말씀캠프는 장애인과 봉사자가 일대일로 짝을 이뤄(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일대이나 일대삼으로 짝을 맺기도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어떻게든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경

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적극 참여가 절대 필요합니다.

말씀캠프에 봉사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말씀캠프에 참가해도 좋겠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하는 가정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여 올여름 말씀캠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캠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말씀캠프는 장애인 캠프이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캠프이기도 합니다. 말씀캠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8월 20일(목) / 2박 3일
- 장소 : 켄싱턴리조트 (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9)
- 주강사 : 김상건(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YIM 대표)
- 등록문의 : (051)852-2763, 010-3450-8467



김상건 목사



늦은 오후에 아름다운교회 김상건 목사와 김현관 집사(간사)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노회에서 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 저는 먼저 나왔는데, 김목사님이 일부러 지하철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있는 쌀국수를 갖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쌀국수를 몇 상자 안고 왔습니다. 손에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었을 것입니다. 오면서 굳이 사 오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답례로 아내도 이것저것 종이 가방(쇼핑백)에 담아주었습니다. 정석중 목사님이 보낸 파프리카도 있고, 장모님이 보낸 기러기알도 있고,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도 담았을 것입니다.

교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오래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에 기쁨찬교회에 구미정 목사가 와서 강의(설교)를 합니다. 저번에 그

교회 김정주 목사를 만났을 때에 그 소식 듣고 참석하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내는 수요기도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냐고 묻기에 못골역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골역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못골’은 ‘큰 못이 있는 골짜기’란 뜻으로 그 지역에 큰 못이 여럿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대연(大淵)’이란 지명도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소식을 보낼 때마다 꼭 사진을 찍어 보내며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참 특별합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며 고맙다고 했더니, ‘과부 설움은 흠아비가 안다고 하는 속담을 언급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한 그는 YIM(Youth Impact Mission)이라는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니엘고등학교 교목과 SFC(학생신앙운동) 간사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헌신했던 목사님은 지금도 부산의 청년 복음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에 YIM 목요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 청소년 캠프도 열고 있습니다.(올해는 창녕 여전도회관에서 연다고 합니다.)



비록 사역의 대상과 모양은 달라도 그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 처지와 형편을 알기에 그런 모양으로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언급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던 시절, 그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아픔과 나약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치유를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타인과 깊이 연대하고, 그 상처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그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 책을 읽고 자신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곁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무던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평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데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의 말을 들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김목사님은 이번 말씀캠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한 인교회 말씀사경회를 마치고 왔다고 해서 안부를 전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에 말씀캠프 얘기를 하게 되었고, 슬쩍 강사에 대한 운을 뚫다가 며칠 전에 다시 전화하여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만 맞으면 어떻게든 가서 기쁘게 말씀 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가만 보면 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민망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함께한다는 것이, 그렇게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캠프 후원♥

말씀캠프 후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말씀캠프가 더 풍성해집니다.

♥국민은행 833601-00-067770

♥부산은행 부산은행 101-2088-9812-07

(예금주 : 부산장애인전도협회)



[1월 후원자 명단]

■개인

강성은, 강예은, 강진현, 김광옥, 김귀애, 김병주, 김병준, 김상연/이나영, 김성수, 김성민, 김순희, 김신, 김옥순, 김우리, 김인찬, 김정민, 김조규, 김중구, 김찬수, 김철한, 김충민, 김충현, 김태자, 김하임, 김현기, 김현희, 남동우, 노해명, 박금강, 박상훈, 박소현, 박영애a, 박영주, 박원희, 박유연, 박은미, 박효빈, 박희정, 배혜옥, 변윤선, 서정혜, 서지안/서지유, 서현수, 성만근, 송인득, 신애심, 신익수, 신재훈, 심현수/김주홍, 예종학, 오순화, 오정근, 유영달, 은하수, 이내영/장은주, 이봉연, 이상미, 이성기, 이완, 이은섭, 이경애, 이중희, 이현정, 임대성, 장수현/김시은, 장중수, 전영애, 전현수, 정연선, 정용근, 정용환, 정정수, 정홍섭, 정호선, 계수아, 계은을, 조건환, 조성관, 조인철, 조혜진, 지연옥, 진영근, 최미숙, 최미애, 한영란, 현유광, 황찬웅

■단체

강릉중앙감리교회, 광고장로교회, 괴정제일교회, 구덕산교회, 김포하사랑교회, 노래하는순례자, 대양제일교회선교부, 동래연약교회, 마산서부교회, 말씀전원교회, 반석샘물교회, 백향목교회, 부산거제제일교회, 부산서면교회, 사랑이꽃피는교회, 사상교회, 사직동교회, 삼일교회국내선교부, 새로운교회, 샘터교회, 서울보은교회, 선한목자선교회, 성북교회3여전도회, 성은교회, 순천영주교회, 아성케미칼, 악목제일교회, 연산중앙교회, 영어예배, 온천제일교회, 울산한빛교회, 이삭교회복지위원회, 작은목자들교회, 장전중앙교회, 재송동교회, 초장동교회, 축복로교회, 현대산기, 호산나교회

[2월 후원자 명단]

■개인

강성은, 강예은, 강진현, 김광옥, 김귀애, 김병주, 김병준, 김상연/이나영, 김성민, 김순희, 김신, 김옥순, 김우리, 김인찬, 김정민, 김조규, 김중구, 김찬수, 김충민, 김충현, 김태자, 김현기, 김현희, 남동우, 노해명, 박금강, 박상훈, 박소현, 박원희, 박유연, 박은미, 박태홍, 박효

빈, 박희정, 배혜옥, 변윤선, 서정혜, 서지안/서지유, 서현수, 성만근, 신애심, 신익수, 신재훈, 예종학, 오순화, 오정근, 유영달, 유재희, 은하수, 이내영/장은주, 이상미, 이완, 이은섭, 이중희, 이현정, 임대성, 장수현/김시은, 장중수, 전영애, 전현수, 정연선, 정용근, 정용환, 정정수, 계수아, 계은을, 조건환, 조성관, 조인철, 조혜진, 지연옥, 진영근, 최미숙, 최인석, 한영란, 현유광, 황찬웅

■단체

강릉중앙감리교회, 광고장로교회, 괴정제일교회, 구덕산교회, 김포하사랑교회, 노래하는순례자, 대양제일교회선교부, 동래연약교회, 마산서부교회, 말씀전원교회, 모든민족교회, 반석샘물교회, 백향목교회, 부산거제제일교회, 부산서면교회, 사랑이꽃피는교회, 사상교회, 사직동교회, 삼일교회국내선교부, 새로운교회, 서울보은교회, 선한목자선교회, 성북교회3여전도회, 성은교회, 순천영주교회, 신흥교회, 아성케미칼, 안락제일교회, 악목제일교회, 연산중앙교회, 영어예배, 온천제일교회, 울산한빛교회, 이삭교회복지위원회, 장전중앙교회, 재송동교회, 제4영도교회, 초장동교회, 축복로교회, 현대산기, 호산나교회

*특별후원/아름다운모임

[재정 현황]

●이월금 : 2,527,069원

① 1월 재정 현황

- 수입 : 5,636,032원
- 지출 : 6,071,120원

② 2월 재정 현황

- 수입 : 6,477,313원
- 지출 : 7,285,040원

●잔액 : 1,284,254원



후원 안내

부산장애인전도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로서 여러 교회와 개인이 보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금은 주로 장애인지원금, 프로그램운영비, 사역자생활비, 사무비, 유지관리비, 소식지 인쇄·발송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부산장애인전도협회를 후원하려면 아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장애인전도협회는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매년 말 후원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영수증이 당장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말씀하면 즉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특정한 용도로 쓰이기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장애인전도협회를 후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13-2013-4001-03	부산장애인전도협회
국민은행	115301-04-202206	부산장애인전도협회
농협	351-1128-6597-43	부산장애인전도협회
하나은행	316-910269-05707	정용균
우체국	600353-02-235561	정용균